

백범 김구의 민족주의 사상 연구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6>

정은경,
교수, 한국어학과,
튀르키예, 이스탄불

E-mail: eunkyuhg.jeong@istanbul.edu.tr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백범 김구의 민족주의 사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의 이데올로기가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민족주의 운동은 대체적으로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김구의 민족주의 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구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구한말의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 사상이 있다.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인간 평등론은 그의 자유, 평등, 자주 사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는 민족주의자이자 혁명가로서 일생 동안 조국의 독립과 민족 단합을 위해 헌신했으며, 그의 인본주의적 민족주의는 독립적 민족국가와 문화국가를 이상으로 삼았다. 또한, 그는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김구의 사상과 국가관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민족의 자주적 독립과 통일을 추구한 김구의 정치철학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신적 기반으로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자유 국가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백범 김구, 민족주의 사상, 한민족, 자유 국가, 독립운동

A STUDY ON THE NATIONALIST IDEOLOGY OF BAEKBEOM KIM GU

DOI <https://doi.org/10.30525/978-9934-26-496-2-6>

Jeong Eun Kyung,
Ph D,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stanbul University, Turkey, Istanbul
E-mail: eunkyuhg.jeong@istanbul.edu.tr

Annotation. In each country, nationalism has its own specifics, which largely depend on the specific place, time and circumstances. The ideology of nationalism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evolved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and at the present stage represents a unique phenomenon. It was the ideology of nationalism that gave rise to a special type of thinking of the Koreans, their national character, culture, and state ideology, which allowed them to achieve certain successes.

The comparative historical and problem-centred chronological methods are the main methods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author uses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when studying the texts of docum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nationalism. There are no comprehensive studies on the ideology of the active figure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Gu, in Eurasian Korean studies, which makes the work demonstrate obvious novelty. In the course of the study, the author comes to the corresponding conclusions. Historically, Korea was dependent on foreign policy, which influenced the formation of nationalist views among the political elite. The peculiarities of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led to the division of its political forces into two main groups, which form the foreign policy course within the framework of a general paradigm characterized by a nationalist context, as well as the desire to ensu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ecurity in the region.

Keywords: nationalism, nationalist concepts, ideology, democratic process,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들어가면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민족주의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구의 민족주의사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현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은 대체적으로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시대 등 세가지 시기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김구의 주요 민족주의 활동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김구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의 국가관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문중섭은 그의 연구 「백범 김구의 이상국가론과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에서 “백범이 제시한 이상국가는 자주 독립의 민족국가와 신민주국가, 문화국가와 세계대동주의적 민족국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로는 김구의 평화론을 들 수 있는데, 전일옥은 백범 김구의 평화론에 관한 고찰에서 김구의 평화론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백범의 평화론은 자주·자립·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주의 국가가 문화를 수단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는

김구의 민족주의 정치관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들 중 정경환은 그의 저서 백범 김구의 정치 사상에서 백범의 정치사상을 자주적 독립국가론, 주체적 통일국가론, 민주주의 실천의지론 및 문화국가창달론 등 네 부분의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김구의 정치적인 견해 및 국가관에 대한 이해를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상당하지만 현재적 시각에서 그의 국가관과 사상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구한말 민족주의 개념의 등장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기는 1905년 한국의 언론에서 등장한 이후 부터인데 이는 중국 량치차오의 '민족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량치차오는 민족을 지리, 혈통, 형질, 언어, 종교, 풍습 및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지닌 집단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민족 개념은 민족의 성립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볼 때 앤서니 스미스의 '원초적 민족주의론'과 일맥상통한다. 원초적 민족론은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한 집단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언어, 신앙 및 풍습 등의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원초적 토대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초적 토대란 한 집단이 공유하는 공통의 조상 및 역사를 의미하며, 문화적 기반이란 언어나 풍습 등 문화적 특징들을 상징한다.

이처럼 량치차오가 말한 '민족'이라는 개념은 조선말기 한국의 주요 언론들을 통해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당시의 '대한매일신보'의 '민족과 국민의 구별'이라는 사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민족이란 같은 혈통을 가지며, 동일한 토지에 거주하며, 공동의 역사를 소유하며, 같은 종교와 언어를 쓰면 이것을 동일한 민족이라 부르는 것인데 '국민'이라는 글자로는 이러한 해석이 어렵다” 다시말해 민족이란 동일한 혈연, 역사, 지역, 종교, 언어 등으로도 이뤄질 수 있으나 국민은 그 밖의 정신이나 행동 등도 같아야 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던 것이다.

민족주의가 사회사상으로 이해되기 전 구한말 시기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이미 운동적인 성격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었다. 구한말 시기에 조선은 1876년 개항이 이뤄졌으며 외교적으로는 일본을 위시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등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였고 사회적으로는 병원이나, 학교, 인쇄소, 교회 등의 신문물이 들어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조선 후기 사회에 서구세력의 확대에 따른 개화파와 보수파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이는 위정 척사

운동, 의병운동 및 동학운동 등 여러 형태의 운동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며 나타났다.

2. 김구의 민족주의 사상적 배경

조선 말기에 등장한 위정척사 사상은 형이상학적 이념이나 유교적 가르침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민족에 독립의식을 심어준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열강의 간섭에 속수무책이었던 조선 말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정척사 사상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동학사상은 1860년에 시작된 한국의 토착종교이다. '동학'은 '동양의 도(사상)'라는 뜻인데 당시 조선에 퍼져 있던 서양 종교에 대항하여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 사회에 구원을 약속하는 신흥 종교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동학 사상은 훗날 항일민족독립운동의 원천이 되었고,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894년 17세의 나이로 동학에 들어간 김구는 동학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천인일치', 즉 '하늘과 사람은 같은 경지에 있다'는 원리와 "한울님(하나님)이 만민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동학의 중요한 교리인 '인내천'을 받아들였다.[1] 이러한 동학의 인간평등론은 김구의 인간평등사상과 자유사상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백범 정치사상의 토대인인 자주 의식 역시 외세의 영향에 대해 거부하는 동학에서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김구가 민중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고 파악된다. 즉, 김구가 정치권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민족 혹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한 것도 동학을 통해 배운 평등사상과 인내천 사상을 실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김구의 민족주의 운동과 국가관

한국에서 '백범선생'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구(1876 - 1949)는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에서 대표적 상징이며 민족주의자, 교육자, 정치가로서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한민족의 단합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그의 생애가 일관된 행동양식 속에서 민족주의의 사상적 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백범을 사상가라기 보다는 운동가나 혁명가로 꼽는다.

그의 민족주의 운동의 기본적인 인식은 임시정부 수반 재임 시절 영국 식민주의에 맞서 평화적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도의 간디에게 보낸 전보에서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김구가 인도의 간디에게 보낸 전보의 일부이다.

“2000년 동안 인도와 한국은 문화적인 관계만 아니라 아시아의 피억압 민족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도 공동의 운명을 공유해 왔습니다. 3000만 조선인을 대표하는 임시정부는 당신의 용기 있는 지도력으로 인도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인도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한국 역사상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김구는 무력투쟁으로 일제와 맞섰던 의병 운동에도 참여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그는 항일운동을 지속하며 열강으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싸웠다. 이처럼 그가 평생을 변함없이 채택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민족'이다. 그가 지상과제로 삼은 민족 개념은 동학, 유교, 불교, 기독교, 서구 정치사상에서 가져온 평등, 덕, 자유, 자선, 인권 등 인간의 가치를 포함했으며 국가 주권과 독립, 통일, 평화 및 자유와 같은 정치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국가의 기본 요소로 조화시켰다.

또한 김구가 추구했던 국가관은 그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그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인본주의적 민족주의'로 묘사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인간 가치의 가장 필수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독립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문화'라고 강조하였는데 문화는 인본주의적 이해와 가치를 통해 발전할 것이며, 동시에 문화와 인본주의적 가치는 서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함께 성숙할 것이라고 믿었다. 김구는 그의 저서 '나의소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그렇다면 김구가 추구한 정치행동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속의 정치사상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우드로 윌슨이 공표한 '민족자결주의' 강령에 영향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정치 운동의 기본 신조로 여겼다. 이것은 그가 윌슨의 민주주의 원칙, 즉 국가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평화적인 목표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기본 원칙을 대한민국 건국 후의 민족통일운동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민족이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선 영토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 소련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국가는 오직 국민의 의지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과의 외교 관계도 이 주요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구는 민족의 독립을 강조하는 한편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으며, 민족과 국가 사이의 문화적 충성을 매우 중시한 것이다.

나가면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백범 김구는 전 생애를 외세의 간섭이 배제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 수립을 통한 평화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했다. 그 이유는 독립하지 않은 국가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평화를 통해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문화국가를 바탕으로 한 민족국가를 그 목표로 보았다. 그가 지향한 문화국가란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에는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현대인들에게 세계평화는 군사력과 경제력 경쟁을 우선시하는 현 국제사회의 모습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화 시대에 한국민족주의가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민족주의 사상은 20세기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이행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민족주의 사상은 조선 후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봉건세력의 폐단과 외세에 침략에 맞서 애국계몽운동, 위정척사운동 및 동학운동 등을 통해서 등장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민족적 주권을 회복하고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독립 운동적 성격으로 발전했으며 해방 후에는 민족 통일의 기본 사상이 되어 자주적 국가 건설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이념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1970-19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 민족주의는 한반도 분단 71주년을 맞은 현재, 사회통합과 통일운동에 있어서 한국민족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구의 민족주의 사상과 그의 국가관은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형성한 정신적 기동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꿈꿨던 자유, 평화국가의 형상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구, 백범일지, 도진순 역, 돌베개, 2002
2. 김삼문, 백범 김구. 시대의 창, 서울, 2007
3. 문중섭.(2009).백범 김구의 이상국가론과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1).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8 (2), 135-161.
4. 전일옥. (2021). 백범 김구의 평화론에 관한 고찰. 평화학연구, 22 (1), 7-23.
5. 정경환, 백범 김구의 정치사상, 이경 출판사, 서울, 2008
6. 정지호(2020), 량치차오의 '국성'론과 '중화민족'의 신질서 모색, 동북아역사논총, 67호, 91-125
7. 앤서니 스미스, 국제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철구 옮김, 1996, 서울: 명경 출판사, 엄연석. (2008).
8. 김구의 인문적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화철학적 목표. 인문연구,(55), 291-326.
9. 정경환. (2008).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47), 102. 101-125.
10. 신한민보 1942년 8월 6일.
11. 대한매일신보, '민족과 국민의 구분', 1908.7.30